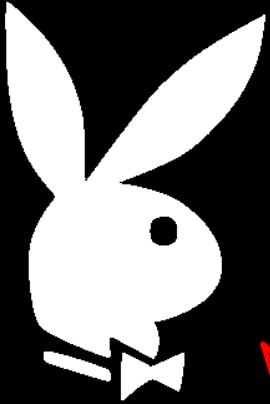




PLAYATTI

10월호



- 01. Peace Camp
- 02. Organic Farm
- 03. End Poverty Campaign
- 04. Personal Essay
- +Bonus cut 화보집

Peace Camp

in Doi Inthanon





소개

해발고도 2565m의 태국에서 가장 높은 산, 도이 인타논.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Peace camp는 바로 그곳에서 국적은 다르지만 JKY, 라자몽 콘 대학, 라온아띠가 아시아의 친구들답게 함께 먹고 자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웠던 시간이었다.

태국어가 서툰 라온아띠들에게 캠페인, 홈스테이 지역 학교에서 수업등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재미난 추억도 함께 만드는 친구들이 생겼다!

1일차

YMCA스텝들과 라온아띠는 선발대로 하루 먼저 Doi Inthanon으로 향하였다. 먼저 마트에서 4일치 캠프 식량을 구입하고, Y대장 P.Prae는 오늘은 특별히 바비큐를 할 것이라며 고기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차에 짐을 싣는 과정에서 **깨진 칠리소스** 한 병이 그 날 저녁 닥쳐올 어두운 미래임을 그들은 알지 못한 채, 신나게 산으로 향하였다.

Doi Inthanon에 도착한 그들은 산장 주인인 아짠 썸싯과 바베큐파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갑자기 비가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고 정전으로 주위는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다. 꺼져버린 전기불판을 보며 찢사이는 “이뤄면 고기 맛없단 마뤄야T^T”라며 울먹였다. 식사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간 라온아띠는 무심코 들었던 배계에서 수십마리의 개미와 엄청난 거미와 조우하기도 하였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2일차

두꺼운 안개 속에서도 해는 떠올랐다.

선발대는 캠프 참가자들을 맞이하러 산 초입으로 향하였다. 오랜만에 만난 JKY학생들과 램빵대 학생들은 여전히 에너지가 넘쳤다.

안개를 뚫고 그들은 먼저 국립공원으로 향하였다. 태국의 최고봉도 오르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숲을 거닐며 자연을 맘껏 즐겼다. 점심식사 후 파고다 공원에 도착해 멋있는 왕과 왕비를 위한 파고다(탑)도 둘러보고 해발고도에 걸맞은 바람과 추위도 느꼈다. 숙소로 돌아온 그들은 네 개의 조로 나뉘어 다양한 언어로 자기소개를 하고 조별 활동을 하였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들의 우정도 깊어지는 듯했다.

3일차

활기차게 아침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 그들.

전 날 준비했던 조별 소개 시간을 가지며 조원 간 끈끈한 팀워크를 다졌다. 언어는 소통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었다.

로얄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전, 그들은 프로젝트의 일환인 양떼 목장을 방문했다. 게걸스럽게 풀을 뜯는 갈색 빛의 양들을 보며 양에 대한 그들의 환상은 깨졌다. 직접 양을 보고나니 프로젝트 담당자의 설명이 더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밤이 깊어지고 캠프파이어가 시작되면서 괴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JKY의 7인조 재간둥이들이 괴상한 분장을 하며 축하 퍼포먼스를 준비했던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밤은 불타올랐다. 그들의 우정도 함께 불타올랐다.



4일차

화끈했던 밤이 지나가고 부슬부슬 내리는 비로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다.

곧 다가올 이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캠프 본연의 목적이었던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됐다. 뜨겁게 놀 줄만 알았던 그들의 진지한 모습이 매력적이었다.

이번 캠프의 마지막 일정인 공원을 거닐며 깊숙이 숨겨져 있던 폭포를 조우하게 되었다. 흐르는 물속에 발을 담그며 모두들 동심으로 돌아간 시간이었다.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가지만 그들의 가슴속에 이번 캠프는 하나의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그들의 FEELING

미래 이번 캠프는 친구들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전에 잠깐잠깐씩 함께 활동했던 JKY고등학교 친구들과 3일동안 먹고 자고 하니 엄청 친해졌어요. 그리고 지난번 어색한 대화만 나눴던 람빵 대학교친구들과도 친해지고 매 순간이 즐거웠던 캠프였어요. 사람들을 만나는게 좋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태국에 온 저는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벌써부터 친구들이 보고싶어요ㅠㅠ

Jidsai 피페가 우리에게 늘 해주시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 캠프에서 나는 모든 장소, 모든 것들로 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었다. 아이들과 나누는 잡담, 맑은 자연, 누군가의 웃음과 같은 것들 말이다. 이번 캠프는 매우 즐거웠고, 값진 경험이었다. 그곳에서 만난 모든 친구들이 그리다. ☺

동영 사람과 사람이 친해진다는 건 신기한 일이다. 말도 잘 통하지 않았고, 나이도 달랐지만 같은 조가 되었다는 이유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함께 웃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조별 장기자랑을 준비할 때, 나머지 조원들이 태국인이기에 나만 준비하면 되는 태국 가요를 하자고 했더니, 조원들이 한국 문화를 알고 싶다면서 한국 가요도 같이 부르자고 한 것이다. 몇 번의 곡 선정 후 채택된 '개똥벌레'도 처음 듣는 노래이기에 힘들었을 텐데 계속 연습하자며 즐겁게 부르던 조원들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

우희 첫날은 비도 많이 내리고 전기도 끊기고 오지로 버려진 느낌이었지만 다음날 JKY 친구들과 대학교 친구들이 도착하고부터는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사눅막막!

Organic Farm

6일간의 여정



13일부터 18일까지 organic farm 홈스테이를 떠난 라온아띠 태국팀을 만나보았다. 그들이 찾아간 Tamdokkam 마을은 유기농법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평화로운 곳이다. 그곳에서 라온아띠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그들이 한 활동

항상 Y스텝들과 함께 있던 그들은 6일동안 네명이서만 살게 되어 오직 마을사람들과 태국어로만 소통을 하게되었다. 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그들은 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트럭 한 칸에 실려 어느 밭으로 향하였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밭에서 잡초를 뽑는 것이었다. 군대에서도 이런 일은 해보적 없다는 시티보이 까몬은 지렁이 한마리에도 기겁을 하였다. 하지만 네명의 단원들, 땀별에서 힘들어 할 줄 알았더니 의외로 단순노동이 체질이라며 묵묵히 잡초를 뽑았다.

물론, 그들이 일만 하다 온 것은 아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골의 아침장을 둘러보러 보면서 처음으로 스님에게 공양도 드려보았다. 그 전날 '마케팅'이라는 일정을 들었던 단원들은 마켓을 가는 것이 마케팅이라는 사실에 허탈한 웃음을 짓기도 하였다. ^^;; 장보기를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홈스테이 엄마가 갑자기 소풍을 가자며 어느 한적한 저수지로 그들을 데려갔다. 맛있는 밥과 주전부리들을 먹으며 신선놀음도 즐긴 그들. 그 와중에 샛노란 옷을 입은 찻사이는 벌들의 사랑을 독차지받으며 기쁨의 괴성을 질러댔다.

그들이 만난 사람

Mea Kham(캄 엄마) 여자 단원들의 홈스테이 엄마. 카리스마만큼이나 정도 넘치시는 분! 마지막 날 밤엔 감성적인 말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주신 따농녀.(따뜻한 농촌 여자)

Puu Kaewu(깨우 아저씨) 인자하신 미소로 항상 까몬에게 화장실 사용 여부를 물어보시던 분

Mea Khaw(캐우 엄마) 남자 단원들의 홈스테이 엄마. 항상 밝게 말을 걸어주시지만 남자 단원들의 태국어 실력으로는 의사소통 불가능

Ppotte(강아지 뽀떼) 귀여운 궁둥이로 애니멀 마스터 찻사이의 사랑을 독차지한, 12살의 푸들 할아버지.

Maeo Mimi(고양이 미미) 다리 사이로 몸을 비비고 가는 검은 고양이. 남자 단원들의 홈스테이 가족.

그들의 완판 이야기

<나는 홈스테이로 경제를 배웠다>

홈스테이 마지막 날 새벽 2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한 그들. 트럭에서 짐을 나르는 것부터 시작해 진열, 홍보에 판매까지!

까몬네 야채가게, 찻사이네 주전부리, 인디네 쌀 가게, 퀴짜이네 반찬가게.
네 가게 모두 완판에 성공했다.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손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이것이 진정한 경제다!’

By. 까몬



그들의 FEELING

민희 나는 늘 이별이 아쉬웠다. 먼저 다가갈 걸, 좀 더 대화를 나눠볼 걸, 더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걸... 그런 아쉬움은 소극적인 나의 태도에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이별의 아쉬움이라기보다는 이별 후 남는 미련, 후회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오가닉 팜에서 만난 새로운 엄마! 홈스테이 엄마와 헤어질 때는 미련이나 후회가 없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엔 부족해 보였을지라도, 짧은 태국어였을지라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다가갔던 것 같다. 앞으로 내가 만날 새로운 인연에 있어서 늘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다.

우희 우리 4명에서 간사님 없이, Y사람들 없이 지낸 건 처음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7월달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활동했는데 이번 기회에 쉬어 갈 수 있어서 좋았다. 나머지 세명은 이 여유로움이 성에 안 차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나는 이 여유로움이 좋았다. 또한 5일간의 생활을 통해서 나답지 않게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동영 신기했다. 바나나 나무가 길가에 심어져 있는 것도, 마당에 닭부터 오리, 개, 고양이가 돌아다니는 것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도시에서만 살아온 내가 해가지면 주변이 캄캄해지는 이곳을 살아보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했다는 것도 참 이상했다. 다리에 몸을 비비고 가던 고양이 미미도, 항상 활기차게 우리를 반기던 개 뽀뽀도 모두가 그림다.

미래 제가 간 마을은 정말 티비에서만 보던 시골마을이었어요. (전 도시에서만 살아온 도시여자거든요) 생전 처음으로 밭일도 해보고 저녁 8시가 되면 자고 새벽 6시에 일어나고. 일주일동안 마치 시골 할머니집에 놀러 간 듯한 느낌이었어요. (물론 저희 할머니도 도시에 살았어요) 정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체험해본 것 같아요.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홈스테이 엄마아빠들께서 계속 7기 단원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였어요. 여기 마을은 지난 라온아띠 7기 단원들이 두달동안 홈스테이를 했던 곳이었는데 다들 자신들의 아들, 딸이라며 단원들 사진을 보여주시고 항상 그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이제 다음달부터 홈스테이를 들어갈텐데, 저렇게 누군가의 기억에 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곳 마을에선 단지 6일만 살았는데 아주머니, 아저씨들과 정이 생겼는데 나중에 진짜 두달동안 홈스테이를 하면 어떤 감정이 생길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여러 생각이 나는 일주일이었어요!



건강한 몸
건강한 지역사회

JingJai Organic Market

수요일, 토요일 5am~9am



End Poverty Campaign

10월 17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맞이하여 태국에서 '비닐봉지 줄이기' 캠페인을 한 라온아띠. 그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자.

Q. 싸왓디캅. 다들 캠페인을 열심히 했는지 피곤해보이네요. 이번에 빈곤퇴치 캠페인을 하셨는데, 빈곤퇴치와 비닐봉지 줄이기가 무슨 연관이 있나요?

A. 빈곤이라하면 보통 물질적 빈곤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한달동안 살아보니 '환경'이야말로 가장 큰 빈곤으로 다가오더라구요. 이곳 태국은 비닐봉지를 엄청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물건 몇 개를 사니 비닐봉지 몇 봉지나 주더라구요. 오염된 환경에서 사는 것 또한 빈곤의 하나이고, 우리가 사는 환경, 세상을 좀 더 깨끗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또한 빈곤 퇴치라고 생각해요.

Q. 캠페인은 어떤 식으로 진행됐나요?

A. 비닐봉지 이야기, 에코백 만들기 프로그램을 이틀 동안 진행했어요. 비닐봉지 이야기는 비닐봉지 사용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 만들었고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과 사진위주로 꾸몄어요.

먼저 토요일 오전에는 러브커피에서 랭귀지스쿨 학생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오후에는 워킹스트리트에 나가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어요. 일요일 오전에는 장소와 방식을 바꿔 랭귀지스쿨에서 진행했어요.

Q. 일요일은 토요일과 다르게 진행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사실 토요일 오전 러브커피에서 캠페인을 진행할 때는 사람들의 관심이 적었어요. 그리고 워킹스트리트에서 진행할 때, 우리의 주 목적인 비닐봉지에 대한 인식 변화보다는 에코백 판매가 더 우선시되어 주객전도가 되었어요. 일요일에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일요일에는 비닐봉지 사용의 폐해를 알리는데 초점을 뒀어요.

Q. 장소와 방법을 바꿔보니 반응이 좀 더 좋았나요?

A. 확실히 달랐어요. 수업 들으러 온 학생들을 초대하여 비닐봉지 이야기를 함께 읽고 퀴즈를 통해 이야기를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우리가 전달한 이야기를 잘 기억해줘서 놀라웠답니다.

Q. 캠페인의 전체적인 총평을 말해주시겠어요?

A. 동영 -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진행하면서 제가 바뀌었어요. 마켓에 갈 때 비닐봉지를 받지 않으려고 가방을 챙기고, 숙소에 돌아다니는 비닐봉지도 다시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바뀌었다는 게 큰 성과인 것 같아요.

미래-제가 상상했던 캠페인은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준비가 많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이번 캠페인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해서 별로였던 건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 덕분에 힘이 났어요.



민희-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팀원들도 계속 말했듯, 본래 중점을 두기로 했던 메세지 전달이 프로그램의 하나로 준비했던 에코백 만들기보다 부수적으로 다루어진 부분이 가장 아쉽죠. 그 외에도 피드백 회의를 제외하고는 즉각적인 피드백이나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캠페인 진행 과정에서 팀 외부의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시면서 팀 내부에서 생각했던 것과 진행이 다른 방향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던 점 등이 아쉽네요.

우희 - 우선 캠페인을 진행할 때 우리를 도와준 JKY친구들하고, YMCA 스텝들에게 감사했어요. 캠페인 진행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아쉬웠어요. 우리 4명이 생각하고 스텝들에게 의견을 듣기도 해서 나온 주제인데 사람들 관심을 별로 못 끈 것 같고 참여도 좋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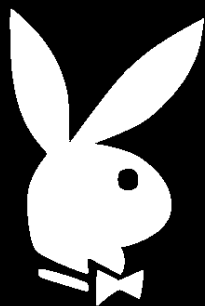


Q. 네, 멋진 캠페인이었네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각자가 생각하는 '빈곤'이란 무엇인가요?

A. 미래-저는 빈곤이란 '행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빈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빈곤한가요?

민희- 저에게 빈곤이란 불편한 현실이에요. 대학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빈곤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대학생이 되고 자본주의 사회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그러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베풀지 않는 부자들에게 예전처럼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려워요. 스스로도 빈곤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정립하려면 현실을 직시해야만 하지만, 빈곤을 보고 있으면 불편해지고 피하고 싶어요. 어쩌면 그 불편함 자체가 빈곤에 대한 나의 결론일지도 모르겠어요. 빈곤이 불편한 것은 제 스스로 세계 도처에 퍼져있는 빈곤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거 같아요.



에디터들의
속내

차미래 Kuan Jai

시간이 그렇게도 가지 않았던 9월과는 다르게, 10월은 정말 스쳐 지나가듯 빠르게 흘렀갔다. 피스캠프부터 시작하여 오가닉 팜 홈스테이, 빈곤퇴치 캠페인, 중간평가, 10월 보고서 준비까지. 매주 새로운 일정을 준비하고 활동하면서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는 행복했다.

내일 11월 2일, 중간평가 팀이 온다. 처음에 평가단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때는 '왜이렇게빨리오실까? 아직 아무것도 한게없는데..'하며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어제 우리 Y식구들 앞에서 최종 리허설을 하며 조금 생각이 달라졌다. 중간평가를 준비하기 위해 9월부터 지금까지의 일정을 다시 살펴보고, 앞으로의 일정들을 정리했었다. 그리고 나의 두달은 어땠나? 되돌아 보았다. 생각해보니 나는 다섯 달 전 라온아띠 지원서를 쓸 때 세웠던 목표들, 생각들을 조금씩 잊고 있었다. 이곳에 와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았지만, 한국에서 가져온 고민거리, 생각할 거리들을 꺼집어 내고 있지 않았다. 예를 들면, 나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라온아띠로써 산다는 건 무엇일까? 봉사란 무엇일까 같은 생각들을 태국가면 열심히 고민해봐야지 해놓고는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두고 있었다. 또 이런 고민들 외에도 처음에 가졌던 다짐과 지금까지 살아온 마음가짐이 일치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며 지난 두 달을 되돌아 보았다. 그러고 나니 앞으로 남은 3개월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나중에 후회없이 떠날지, 내가 앞으로 어떤 고민을 하며 살아야 될지 감이 잡혔다. 중간평가가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된 것이다. 처음의 무거웠던 마음과 달리 지금은 중간평가가 나와 팀원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중요한 시점인 듯 하다.





많은 태국 사람들 속에서 웃고 즐기고 함께 지내며 행복했던 10월. 이제 11월이다. 이틀 후면 이 곳 산캠펡YMCA를 떠나 어느 한 마을로 들어가 홈스테이를 하게 된다. 내가 라온아띠 태국팀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두 달간의 홈스테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뻐했다. 다른 가족, 다른 삶을 함께 살아본다는게 너무 궁금했기 때문이다. 막상 눈앞에 닥치니 조금은 걱정도 된다. 내가 그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나는 불편하지 않을까. 하지만 정말 설레인다. 나의 가족들은 누구일까. 나는 어떤 딸이 될까. 홈스테이 외에도 내가 더 더 기대하는 것이 있다. 바로 학교 수업. 내가 라온아띠에 지원한 이유 중 하나는 지난 번 단기봉사에서 했던 일회성적인 교육, 지속적이지 못한 프로그램이 싫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속성 있는 어느 활동을 해보고 싶었고 태국에 왔다. 하지만 지난 두달동안은 그러지 못했다. 거의 일회성적인 프로그램들을 했었다. 그래서 힘들기도 했고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런 생각도 했었다. 그렇지만 이제 홈스테이 마을로 들어가면 1월까지 매일 학교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매일 매일 수업을 기획하는게 힘들고 피곤할 것 같지만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좋다.

10월 보고서 에세이인데 10월 활동에 대한 생각을 많이 못 쓴 것 같다. 그만큼 지금 내 머릿속이 내일 있을 중간평가과 이틀 후 의 홈스테이, 학교활동에 사로잡혀 있는 듯 하다. 그치만 10월은 태국인 친구들 덕분에 많이 웃고 즐기고 행복했던 한 달은 확실하다 © 정말로 지금 태국 친구들이 보고싶다. 키튼 막막 <3

인디

이번 달은 ‘다름’에 대한 이해를 해보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다. 라온아띠로 오면서 내가 국내훈련 때부터 새운 목표 하나는 우리 네 명아서 행복하게 잘 살다 오기였다.

이 목표가 처음 한 달간은 몰랐는데 살다보니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로 각자의 생각, 행동,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등 모든 것이 달랐다.

갈등도 있었고 힘든 시간도 있었다.

하지만 지나고 나니 그 시간이 싫지만은 않았다.

예전보다 더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 거 같다.

국내 훈련 때 항상 들어 왔던 말이 있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이 말을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라온아띠와 관계가 깊은 Mr. 노먼 씨를 만났을 때

노먼 씨는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도 좋지만 다른 생각도 해보고 라온아띠로써 여기 태국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갔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

이곳에서 생활은 나에게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인데 너무 조그마한 목표밖에 세우지 않았나 하고 말이다.

이제 곧 홈스테이에 가는데 그곳에서는 또 새로운 가족을 만날 테고 학교수업에도 들어갈 것이다. 태국에서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더 많이 생각해 보고 소중한 경험을 쌓고 가고 싶다.

찢사이

10월 중반쯤부터 나는 나에게 찾아오는 행복마저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많은 고민거리에서 달리고 있었다. 회의 시간에 종종 찾아오는 불편한 침묵이나 팀원들과 같이 일을 하는 도중 느껴지는 외로움. 내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팀원들에게 쌓여가는 섭섭함.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들을 혼자 고민했고, 그로 인해 힘들고 지쳐갈수록 팀원들에게 등을 돌리게 됐다.

그렇게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데, 한 팀원과 불화가 생겼고 '서로 터치하지 말자'라는 말을 듣게 됐다. 나는 그 사건에 나를 휩싸고 있던 고민들을 연결 지었다. 나를 괴롭히던 고민들의 책임을 팀원들에게 전가한 후, 그걸 그냥 사실로 인정했다. 그렇게 하니 신기하게도 그 많던 고민이 해결됐다. 팀원을 이해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말이다. '너는 너, 나는 나' 방식은 정말 쉽고 편했다. 팀원들의 행동이나 말, 모든 것이 내 감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행복은 없었지만, 상처도 없는 나날들이었다.

귀를 막고 입을 다물어 버리는 그 방식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나만의 공간에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백 개에 가까운 회의록부터 다른 기수의 에세이, 인터넷에서 떠돌아 다니는 격언까지 많은 곳을 헤집고 다녔는데, 그 답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었다.

“필요한 역할에 맞는 자세로 활동에 임하고 팀원끼리도 늘 배려의 자세를 갖춰 손발이 척척 맞는 즐거운 봉사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5개월 전에 라온아띠 지원서에 썼던 말이다. 그 당시 나는 합격을 위한 거짓말이 아닌, 진심을 담은 다짐으로 몇 번을 다듬은 끝에 저 문장을 썼었다. 하지만 10월의 끝 무렵에 무심코 지원서를 다시 읽기 전까지 나는 저 다짐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현지에서 만나는 새로운 인연에 정신이 팔려서, 늘 붙어 있는 팀원들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나는 그렇게 그 때의 다짐을 잊어버렸던 것 같다.

초심으로 돌아가 남은 세 달동안 라온아띠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다시 다짐해본다.

팀원들에게 불만을 갖고 혼자 끙끙 앓을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할 것.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힘들지라도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배려 속에서 관계의 즐거움을 누릴 것.



까문

9월과 10월의 한 달이라는 시간들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달랐다.

9월에는 태국에 와서 마냥 들떠서 설레었지만, 10월은 고민의 연속이었다. 태국에 온 이유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 하는 활동들의 의미, 그리고 팀 내의 갈등까지 쌓이면서, 혼자서 이어폰을 끼고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졌다. 10월 개인 소감을 적는 지금도 내가 했던 고민들에 대한 답을 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들을 하면서 ‘다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다. 내가 아닌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까 싶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바로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각자의 나이만큼 다른 삶을 살아왔기에 서로 다른 것은 당연한데도, 나는 그 ‘다름’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팀원들이 틀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원서를 다시 읽으면서 내가 한 이야기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했다. 그리고 평범한 대학생 4명을 태국으로 보냈을 지도 생각해보았다.

우리는 잘 하려고 여기에 온 것일까? 뭔가 대단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난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왜인지 그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잘 할 것 같아서는 아니라는 것이다. 5개월의 활동이 끝날 때 즈음에는 답을 찾을지도 모르겠다.



“나 여기에서
조금만 더
놀다가면 안될까?”

내 생애 가장 순수했던 날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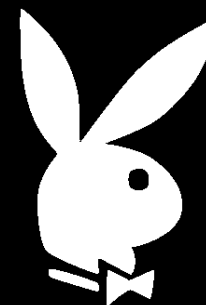
2014년
KB국민은행-YMCA
대학생해외봉사단

라온아띠 13기를 모집합니다.

참가대상 국내 혹은 국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휴학 중인 대학생
모집인원 30명
파견국가 태국, 동티모르, 미얀마, 인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아시아 7개국)
활동기간 (국내훈련 1개월) 2015년 1-2월 (국제자원활동 5개월) 2015년 3월-8월
지원규모 왕복항공료, 숙식비, 활동비 전액 지원
신청기간 2014년 11월 6일-12월 9일까지 라온아띠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작성
선발과정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
진행과정 국내훈련(1개월)-출국 전 캠프(2박 3일)-국제자원활동(5개월)-귀국보고회 및 귀국캠프(2박 3일)
홈페이지 www.raonatti.org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문의 한국 YMCA 전국연맹 라온아띠 사무국 02)754-7892

“나 여기에서
조금만 더
먹다가면 안될까?”

내 생애 가장 맛있던 날들



Coming soon

2014년
KB국민은행-YMCA
대학생해외봉사단
라운아띠 13기를 모집합니다.

참가대상 국내 혹은 국외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
모집인원 30명
파견국가 태국, 동티모르, 미얀마, 인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아시아 7개국)
활동기간 (국내훈련 1개월) 2015년 1-2월 (국제자원활동 5개월) 2015년 3월-8월
지원규모 광복항공료, 숙식비, 활동비 전액 지원
신청기간 2014년 11월 6일-12월 9일까지 라운아띠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작성
선발과정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
전행과정 국내훈련(1개월)-출국 전 캠프(2박 3일)-국제자원활동(5개월)-귀국보고회 및 귀국캠프(2박 3일)
홈페이지 www.raonatti.org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문의처 한국 YMCA 전국연맹 라운아띠 사무국 02)754-7892